부여 쌍북리서 백제 사비기 사찰 확인

국립부여문화유산硏 · 부여군
부여 관북리 유구분포조사서
광배, 화불 추청 유구들 발견
일대 사비 핵심 지역 가능성↑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부여 쌍북리 일대에서 발굴한 불탄 기와와 소조상 조각들.

부여 쌍북리 일원에서 사찰 관련 유물들이 출토돼 일대에 사비기 사찰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소장 황인호, 이하 연구소)와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부여 쌍북리 일대에서 '부여 관북리유적 18차 유구분포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쌍북리가 관북리와 더불어 백제 사비기의 핵심 지역이었음을 보여 주는 성토층과 함께 사찰 관련 유물들이 확인돼 이 지역에 백제 사비기의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유구분포조사에서는 부소산 끝자락과 연접한 3-1구역(3만523㎡) 북쪽에서 풍화된 암반층 위에 인위적으로 약 1m 높이로 흙을 켜켜이 쌓은 성토층을 확인됐다. 당시 왕궁과 같이 중요 건물을 축조할 때 사용된 전형적인 백제의 수평성토(흙을 일정 높이로 고르게 쌓아 지표면을 평평히 만드는 방식) 판축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이 일대에 중요 건축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다. 부여에서 수평성토 기법이 적용된 사례는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조사지역 남쪽과 부여여자고등학교 동편에서는 불탄 기와 조각과 함께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 불상의 몸이나 광배 등에 작게 표현된 부처인 '화불'과 옷자락 모양으로 추정되는 소조상 조각들이 다수 출토됐다. 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쌍북리 일대에 사비기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출토된 광배의 화염문(火焰文, 불꽃무늬) 테두리는 금으로 만든 안료(金泥, 금니)를 사용해 그렸으며, 불상 또는 보살상의 옷자락은 안료를 사용해 채색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삼국시대에 제작된 소조상에서 금니가 사용된 것은 처음 확인된 사례로 당시 쌍북리 일대의 소조상 제작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오는 2026년 5월까지 쌍북리 전역(10만9183㎡)에 대한 유구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유적 정비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조사 현황을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백제 사비기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국가유산 '산사'를 즐겨 볼까

국가유산진흥원, 9월 방문코스 '산사의 길'

가을로 접어드는 9월, 국가유산 '산사(山寺)'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은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9월 국가유산 방문코스 '산사의 길'에서 '이달의 방문코스'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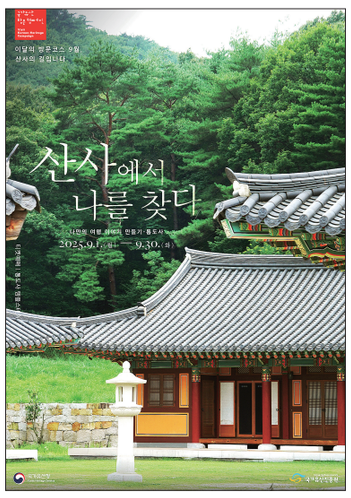
'국가유산 방문코스'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과 76개의 거점으로 구성돼 있다. 10개의 코스 중 방문하기 좋은 계절과 시기를 고려해 '이달의 방문코스'를 소개한다.

9월에는 가을 풍경 속 산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산사의 길'이 선정됐으며, 전국 9곳의 대표 산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만날 수 있다. 거점 산사는 △공주 마곡사 △보은 법주사 △순천 선암사 △순천 송광사 △안동 봉정사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합천 해인사 △해남 대흥사가 선정됐으며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누리집(www.kh.or.kr/visit)에서 각 거점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순천 선암사와 양산 통도사에서는 산사에 자유롭게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는 1박 2일 템플스테이 '산사에서 나를 찾다'가 열린다. 독서, 음악 감상, DIY 체험이 가능한 '방캠상점'도 함께 운영된다. 참가자는 방문 캠페인 누리집에서 60%~80% 할인된 가격으로 템플스테이를 예약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소지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1만원이 증정된다.

'산사의 길'을 음성으로 소개하는 '국가유산 음성 안내(오디오 가이드)'도 제작된다. '뉴진 스님'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의 재치 있는 해설로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보호하는 '국가유산 순찰대' 활동이 9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50팀이 선정된 순찰대는 '산사의 길' 거점 9곳을 순찰하며,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참여 후기를 나누게 된다. 순찰대에게는 걷기 편한 신발 브랜드 '르무통'의 운동화와 국가유산 순찰 일지, 쓰레기 줍기 키트 등이 제공된다.



해인사 등 9곳, 거점 선정돼
템플스테이 등 프로그램 다채

세계적인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삼성 헬스'와 함께 9월 동안 '국가유산 걷기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된다. 앱 내 '투게더 챌린지'에서 걷기 미션을 완수하면, 갤럭시 워치와 K-헤리티지 S스토어 문화상품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쏘카'와 함께 '산사의 길' 거점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이용권 60%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가유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산사 영상도 공개된다.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파비앙 코르비노, 피터 빈트가 순천 선암사와 송광사로 떠난 '산사의 길' 여행기는 9월 4일 '어썸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사찰 봉사 온 일본 여학생들 '대반야경' 발견 문화재 등록

일본여대 자원봉사자 그룹
도쿄 엔메이지서 고서 조사
잠들어 있던 '대반야경' 발굴
사찰 부흥 기원하며 經 조성
올 봄, 도쿄 유형문화재 등록

일본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그룹이 지역 사찰에 잠들어 있던 고서 600권을 조사한 결과, 지역 신행활동에서 사용되던 〈대반야경〉임을 밝혀냈다. 이 경전들은 올해 봄, 도쿄도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됐다.

봉사그룹을 지도한 후지이 마사코 일본여자대학 교수는 "대학생이 실제 문화재를 조사하고 문화재 등록에 이른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소식을 8월 20일 일본의 '윗 뉴스' 등이 특별보도했다.

경전이 소장된 사찰은 도쿄도 이타바시구에 소재한 엔메이지(延命寺). 약 400년 전에 건립된 진언종 사찰이다.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 화재로 사찰이 쇠락하곤 했으나 그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부흥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 무렵 이타바시구 교육위원회는 엔메이지에 소장된 에도시대의 불화들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600권의 〈대반야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사찰문화재의 권위자인 후지이 교수에게 협력을 의뢰, 자원봉사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은 약 40명.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진행됐다. 학생들은 600권의 경을 1권씩 조사해 각 권의 말미에 기입된 시주자의 이름, 거주지, 연도 등을 분석하고, 사진촬영 등을 통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학생들은 경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조사 중엔 반지 등의 액세서리류를 금지하고 작업자 간의 소통을 위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드는 등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연구활동에 적용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대반야경〉은 약 170년 전, 절의 부흥을 바란 지역 주민들의 발원으로 엔메이지에 봉헌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세기 교토에서 만들어진 황벽판 대장경에서 인경된 목판 인쇄본으로 당시 일본 각지의 사찰에 보급된 판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엔메이지 소장본은 각 권의 말미에 시주자들에 관한 정보가 묵서로 쓰여져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경전을 시주한 이들은 대부분 엔메이지 부근에 거주했던 주민들로 밝혀졌다. 조사에 참여한 일본여자대학 학생 하마구치 카호 씨는 "시주자의 거주지 중에는 현재도 남아 있는 지명도 있어, 조사 중에 '내가 아는 지역이다'라는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시주자 가운데는 무사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농민이었다. 또 경전이 보관된 상자는 장인이 손수 만든 고급품으로 당시 서민의 다수였던 농민이 사찰의 부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후지이 교수는 "에도시대 지역 불교신앙의 모습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귀중한 성과"라며 "특히 학부생들이 실제 사료를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기회인지 알고 진지하게 봉사에 임해 준 것이 이번 성과에 연결됐다"고 평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 고서 조사에 참여한 일본여자대학의 학생들. 사진 출처=윗뉴스

